



살롬!

태국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지역 감염이 없다는 소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느끼는 마음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 국민들은 너무도 편안하게 평상의 삶을 살고 있어 우리도 특별한 경계심 없이 이곳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9월을 보내며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여러 일들을 해결하며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곳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오늘이지만 지금 한국은 중추절을 맞아 모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의 긴장에서 좀 벗어나 여유와 쉼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10월 기도편지 띄워 드리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9월에도 변함없이 매 주 수요일 산에 올라 빠마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하며 하룻밤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이번 9월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오고가는 걸음 더욱 긴장하며 다녔지 싶습니다. 공동체 산하 빠마이에서 좀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붉은 라후족 에디교회에 밤새 내린 비로 갑자기 밀려든 물에 사택과 교회가 휩쓸려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이 황토 흙탕길을 만들며 만들어진 물고랑으로 차량 바닥에 드드드득 긁히는 흙, 그리고 미끄러움이 얼마나 심하던지 트위스트를 추는 산길 운전이 긴장하며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 싶으셨는지 귀한 한 후원자를 통해 차량 현금을 보내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은 모든 차가 수입차라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기도중입니다. 여하튼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번 9월의 시간 빠마이에 다녔지 싶습니다. 더하여 빠마이에 성경을 기증하시는 모 후원자의 은혜로 빠마이 모든 아이들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9월에도 현지 아이들 다섯 명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 암송 체크와 삶의 습관을 교육하며 보냈습니다. 3개월을 함께 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 명의 아이는 하루 한 구절 암송을 하였고 매일 저녁 암송과 쓰기를 체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장, 3장 전장을 암송하였고 지금은 4장을 암송 중에 있습니다. 산에서 생활하던 습관과 다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 절약하는 것, 청소하는 것을 훈련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내와 폰은 다음 달(11/21 토)에 결혼 날짜를 잡았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내는 변함없이 주일 예배 통역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자와 선교사 노동 허가서 연장, 자동차 검사 및 재등록을 통해 이곳에서 일 년의 삶을 연장 받았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통해 치앙라이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검사와 재등록, 보험을 새롭게 갱신하여 어디

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불신 검문을 대비해 꼭 챙겨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자 연장과 선교사 노동 허가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매우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다소 긴장 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하셨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 해주신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지경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고 기쁜 추석 명절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10월 기도편지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 2)

<기도제목>

1. 코로나 19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태국, 온 세계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메콩강 공동체와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 믿음과 건강으로 자라게 하소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 이 땅에 믿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2. 2020년 치앙라이 한인교회 주제
“영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를 이루어 가소서.
치앙라이 한인교회 흠어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3. 2020년 파송교회, 후원교회, 후원 기관과 모든 개인 후원자의 지경에
성령님 기름 부으사 코로나 19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4. 코로나 19로부터 예영, 예은, 예슬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영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건강,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은이 방콕에 머물며 믿음의 지정석과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믿음과 건강,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슬 11학년 지혜와 건강으로 잘 보내게 하옵소서.
5.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건한 저와 아내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메콩강 공동체 부대표 직임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차량을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일 년 비자, 선교사 노동 허가서 연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노석희 길영순 예영 예은 예슬 선교사 올림